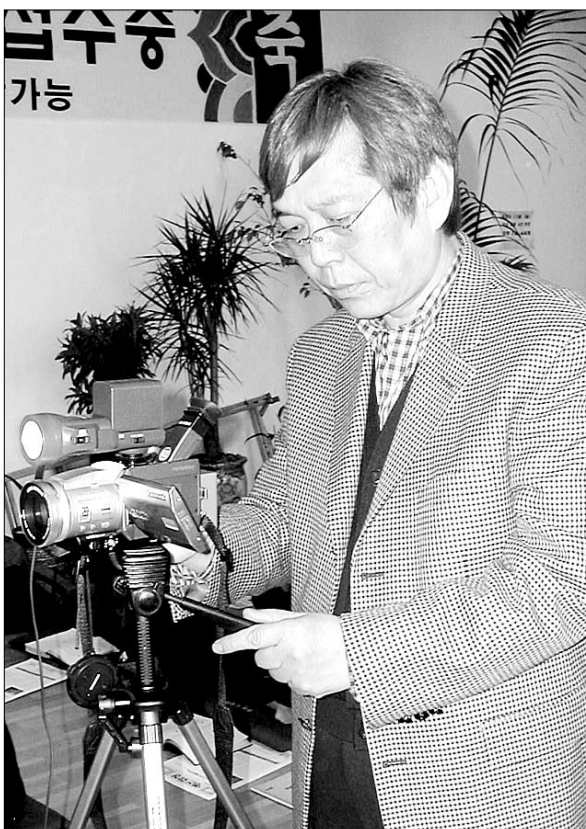


“동영상 서비스로 법공양 해요”

일요법회 녹화 홈페이지에 제공 법장사 지철 거사

지난해 12월 마지막주 일요일인 29일 10시 30분. 서울 신대동 무진법장사의 일요법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철거사(본명 한정섭·50·서울역삼동)와 딸 경진(20)은 트라이포트 위에 캠코더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테스트하는 등 분주하다. 잠시 후 법회가 시작되자 지철거사는 캠코더 녹화버튼을 누르며 자신의 법문을 비롯해 법회 내용을 카메라에 담는다. 법회가 끝나기 무섭게 지철거사는 집으로 돌아와 오후내내 컴퓨터를 활용, 촬

동영상 전문 편집 컴퓨터와 장비가 천만원을 호가하지만 더 많은 법우들이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찰의 영상 자료가 인터넷에 올라가면 사찰 역사의 기록으로 남고 특히 영상세대인 청소년 포교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지난해부터 장비를 구입해 인터넷 법보



◇지난해 12월 29일 법장사에서 일요법회를 녹화하고 있는 지철거사.

취미로 익힌 캠코더 촬영·편집술 이용
스님법문 97건 저장...70~80회 접속

영한 동영상을 편집해 이를 법장사 홈페이지(www.bupjangsa.org)에 올린다. 부처님 오신날, 성도재일 등 법장사의 행사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캠코더를 들고 있는 지철거사.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이지만 법회내용을 촬영해 법장사 홈페이지에 올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법회에 나오지 못하는 법우들을 위해서다. 법장사 장립 멤버이자 거사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철거사는 가끔 집안사정으로 인해 법회에 나오지 못한 법우들에게 스님의 법문을 다시 듣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소에도 정보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는 법우들을 위해 취미로 즐겨온 동영상 촬영과 편집 기술을 활용, 법회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발심했다.

시를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법장사 홈페이지 서버의 용량 문제로 동영상 보다는 주로 음성 법문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법장사 홈페이지에는 현재 지철거사가 올린 동영상 파일과 함께 스님의 음성법문 97개가 올라와 있으며 평균 7~80회의 클릭수를 자랑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실제로 해외에 이민한 신도들도 일요법회 동영상을 보며 법장사와의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 법장사 주지 퇴후스님은 “인터넷의 발달과 주 5일제 실시로 사회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불교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타종교에 비해 부족한 것 같다”며 “지철거사가 제공하는 법회 동영상은 사찰과 불교를 알리는

좋은 콘텐츠가 되고 있어 앞으로 다른 사찰에서도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학생회 회장 및 동문회장을 역임한 지철거사는 본인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 모두가 법장사 일요법회에 참석하는 등 왕성한 신생활을 펼치고 있다. 특히 슬하의 두딸이 모두 어린이회부터 지속적으로 신생활을 해오고 있고 큰 딸 경진은 현재 법장사 중고등부 학생회 지도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nia.com

IT단신

2002 대한민국 게임대상 ‘네이비필드’ 국무총리상

문화관광부와 전자신문, 스포츠조선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게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2002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에스디엔터넷의 ‘네이비필드’가 올해의 대상인 국무총리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PC게임 부문 우수상에는 나비아엔터테인먼트사의 ‘코코록’, 온라인게임 부문 우수상은 트라이글로우픽스사의 ‘프리스톤테일’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구립 27일 서울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청소년영화·애니메이션 25일까지 하남시에 캠프

청소년 디지털 영화·애니메이션 제작 캠프가 20일~25일까지 6일간 경기도 하남시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서 개최된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와 MBC프로덕션이 주최하는 이번 캠프는 18세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실무위주로 이뤄지며 디지털영화캠프와 애니메이션캠프 두 과정으로 진행된다. 문의(02)789-0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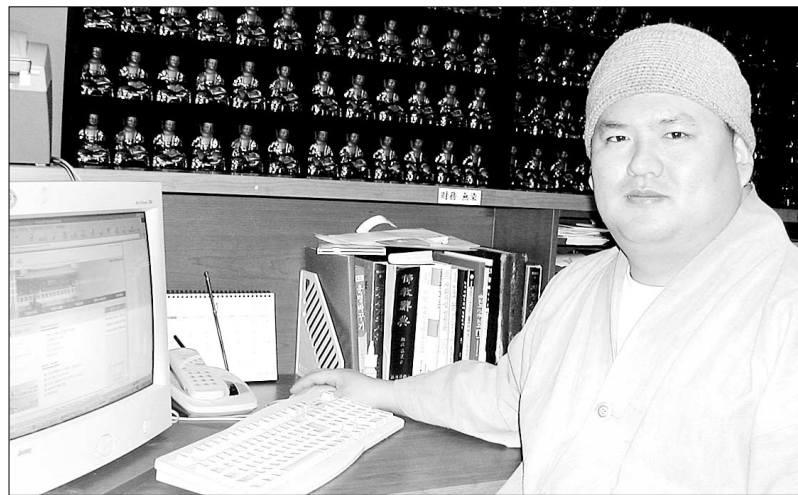
우리절 Digital·cyber 불사

도림사

도현이(가명 10세)는 학교가 끝나면 도림사로 달려간다. 집에는 없는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대가 높고 교통이 불편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흑석 3동. 이곳은 이른바 정보 소외 지역이다. 도림사주지 성도스님은 이같은 지역 현실을 감안해 생활복지관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2대를 설치,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사찰이라는 점이 다소 낯설기도 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찾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초·중학생들이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도림

무염스님은 또 사찰 정보화에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상향 사찰종무 프로그램을 구입, 종무소 한켠에 꽂혀있는 3000여장의 신도카드를 전산화했다. 아직까지 주지스님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신도카드를 그대로 두긴 했지만 신도들의 생일, 전화번호 등 수 많은 정보들이 DB화 되어 있기에 우편 발송을 비롯해 사찰 종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도림사는 99년 홈페이지(www.dorimsa.org)를 개설했다. 최근 새로 단장한 도림사 홈페이지에는 도림사 소개, 부설단체, 사이버 법당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지장도량으로 지장재일, 조상천도제 등을 매달 봉행하고 있는 도림사는 이같은 오프라

신도카드 3천여장 전산화 ‘홈피’ 개설 휴대전화로 매일 법구 전달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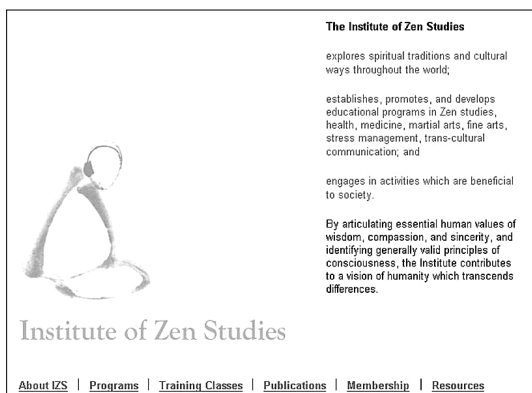
◇저소득층 지역정보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는 도림사는 컴퓨터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사진은 무염스님의 업무 모습.

사는 올해부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컴퓨터 및 인터넷 교실을 열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정보화 소양을 길러줄 계획이다. 도림사가 이같은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염스님 때문. 동국대학교 선학과를 졸업하고 불교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스님은 불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이 바로 ‘복지’라고 확신한다. 99년 도림사 부주지로 취임한 스님은 도림사 생활복지관을 개소하고 헬스 기구, 컴퓨터 등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편의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인 법회를 홈페이지 사이버 법당 코너에서도 볼 수 있도록 최근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사이버 법당을 통해 축원을 접수받아 매일 아침 신도들의 발원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초등학생들도 가지고 다닐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는 핸드폰. 스님은 이 핸드폰을 활용하면 불교포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도들에게 매일 법구 한두구절을 보내겠다고 올해 부처님전에 발원했다. 또한 신도들의 반응이 좋으면 이를 확대해 모바일 불교교양대학 설립도 스님은 소망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 선연구학회



된 학술적인 연구 뿐만 아니라, 선을 응용한 건강, 예술, 미술, 스트레스 관리, 통신 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있는 전문적인 선 사이트이다. 선연구학회는 현대 사회에 쉽게 접근하는 선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스트레스 해소법, 생각하는 법, 인식과 감성의 증

가, 육체를 좋은 상태로 개선시키기, 부정의 영향 멈추기,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하기, 깨달음의 가능성 등을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한다. 갤러리에서는 사원사진, 도조의 장면들, 꽃 등의 자연풍경을 다룬 사진 등 선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살린 각종

禪응용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진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갤러리 코너에서는 선연구학회, 일본문화원 등의 관련 세미나, 강좌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선연구학회는 선 잡지와 관련 책들도 출판하면서 전문 선 사이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선연구학회(http://www.izs.org)는 하와이에 본부를 둔 선교육 사이트로 1982년 조직된 단체이다. 선에 관련

개시판 엮보기

- ...평평 내리는 눈발을 가르며 달리는 기차타고 떠나고 싶어서~ 떠나고 싶은 이마음은 아무래도 고칠수 없는 불치병 같아... 푸후. 윤화섭 프리즘 감흥을 터는 사람들 개시판
-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 하시길 빌겠습니다. 조화욱 다음 소림불교학생회 개시판
- ...성긴 눈발 한송이 닿아도 떨어지는 솔잎같은 그런 것이 사랑이리, 사랑합니다. 화야, 세이클럽 불교사랑 개시판
- ...여기 전단의 향기와 장미의 향, 그리고 연꽃과 자스민의 향이 있다. 그러나 이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모든 꽃의 향기를 앞지른다. 선덕행, 대한불교 천태종 개시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분께는
인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